



☎ 보도일시: 2018. 8. 30(목) 배포 즉시
☎ 총 2쪽 (사진자료 별도송부)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부 장 박정근 ☎ 052-703-0831
연구원 김경우 ☎ 052-703-0837

< 본 자료는 <http://www.kosha.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제5회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선정
최우수상에 광운대학교 백지은씨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30일(목) 경주 현대 호텔에서 제5회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 수상작을 선정**했다.

* 전국 5만 가구, 만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수준과 변화를 3년 단위로 조사

** 시상식: 8월 30일(목) 경주 현대호텔, ' 18년도 한국산업보건학회 하계 학술대회

- 일하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4개 논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대학(원)생 부문	1개 논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2개 논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8개 논문
일반 부문	-	1개 논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상)	

- 대학(원)생 최우수상은 광운대 교육학과 백지은씨의 “근로환경의 상호작용 공정성 수준이 업무스트레스 및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연구”가 차지했다.

- 해당 논문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자원으로써 상호작용 공정성 개념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

- 우수상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원설아씨의 “근로자의 직업성 손상 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4차 근로자환경조사를 이용하여”가 차지했다.
 - 직업성 손상 경험 유무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직업 및 근로환경 특성을 파악해 직업성 손상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 또 다른 우수상은 서울대 의과대학팀(임현묵, 박참진, 육지후, 김민석)의 “한국인 임금 근로자에서 일-생활 균형 및 노력-보상 불균형과 우울감의 연관성”이 차지했다.
 -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통해 일-생활의 균형과 노력-보상 불균형 상태를 구분하고, 집단별 노동자의 우울감 수준을 분석했다.
- 일반 부문 우수상은 윤지현씨의 “여성근로자의 감정노동 강도 및 빈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차지했다.
 - 여성근로자의 감정노동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감정노동 강도·빈도와 근로환경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 이밖에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동자의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연구: 건설현장 종사 직군을 중심으로” 등 총 8편의 논문이佳作를 수상했다.
- 안전보건공단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